홈페이지QR

농축환경신문

2026년 7월 27일 월요일 제1252호(주간) www.nonguptimes.com 전화 (02) 582-4016 이메일 press@nonguptimes.com

2 농촌특화지구 규제 풀고 지역 활력 높인다 | 4 농진원, 농약공정분석방법 고도화로 농약 품질관리 강화 | 6 전국한우협회,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 개최 | 9 자연의 힘으로 숲을 키우는 천연갱신 기술 개발!

농식품부, 그린바이오 선도기업 육성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

전국 7개 육성지구 중심 클러스터 고도화
그린바이오 펀드 2,429억원으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식품 분야에 첨단 생명공학과 인공지능(AI)을 접목한 그린바이오산업을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농식품부는 20일 경기 수원시 CJ 블로썸파크에서 '제1차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기본계획(2027~2031)'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마련된 최초의 중장기 법정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2031년까지 그린바이오 시장 규모 10조 원 달성, 매출 100억 원 이상 선도기업 300개 육성, 글로벌 기술 수준 90% 돌파를 목표로 4대 성장전략을 추진한다.

우선 전국 7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를 중심으로 지역 특화 클러스터를 고도화한다.

전북 미생물, 경북 동물용의약품 등 지역별 특성에 맞춰 종자·미생물·곤충·천연물·식품소재·동물용의약품 등 6대 분야의 클러스터를 연계·집적화할 계획이다.

연구개발부터 제품화까지 지원하는 벤처캠퍼스 7개소, 첨단분석시스템 2식, 산업화시설 4개소 등 공공 인프라도 확대한다. 기업과 농가 간 계약재배를 늘려 안정적인 원료 공급과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 확보를 동시에 지원한다.

유망 벤처·중소기업의 사업화 지원도 강화한다. 그린바이오 펀드 규모를 2026년 1천429억 원에서 2031년 2천429억 원으로 1천억 원 확대하고, 정책금융과 연계해 기업의 제품 상용화와 투자 유치, 판로 확보, 수출 등을 전주기적으로 지원한다.

AI 기반 기술 혁신을 위한 '그린바이오 AX 플랫폼'도 구축한다. 농업생명자원의 특성·유전체·기능성·마이크로바이옴 등 분산된 정보를 표준화해 통합 제공하고, 소재 발굴과 연구개발 기간 단축을 지원한다.

전문인력 양성 규모도 확대한다. 현재 1개 대학 20명 수준인 그린바이오 계약학과를 2031년까지 5개 대학, 100명 규모로 늘리고 석·박사급 인재를 육성한다. 아울러 '그린바이오 톡'과 규제자유특구·샌드박스 등을 활용해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도 추진한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그린바이오산업은 우리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끌 미래이자 대한민국 바이오경제를 이끌 신성장동력"이라며 "유망 벤처기업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농업인과 기업이 함께 윈윈하는 상생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김대경 기자
press@nonguptimes.com

NH농협금융, 'NH미소금융재단' 설립 착수

은행·증권·보험 등 주요계열사 1000억원 공동 출연

NH농협금융지주(회장 이찬우)는 'NH미소금융재단(가칭, 이하 재단)' 설립 본격 착수를 위해 7월 21일 TF 킥오프회의를 개최하여 설립절차 등 세부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앞서 농협금융은 범농협 차원의 장기연체채권 소각 등 포용금융 확대계획 발표 시 미소금융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으며, 이후 금융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과 소통하여 올해 안에 완료한다는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농협금융의 미소금융 사업은 그룹 차원에서 추진된다. 재단 설립을 위해 은행, 증권, 보험, 캐피탈 등 주요 계열사가 1,000억원을 공동 출연하며, 그룹 컨트롤 타워인 「생산적금융 특별위원회」 산하 포용금융 분과장(황종연 지주 전략기획부사장)이 직접 TF장을 맡은 만큼, 향후 완성도 높은 미소금융 사업전략과 속도감 있는 추진이 전망된다.

▲NH농협금융지주 이찬우 회장

특히, 농협금융은 지역 중심 미소금융 공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찍을 계획이다. 기존 미소금융상품(창업·운영자금, 생활안정자금)과 함께 농협금융의 노하우를 담은 농업인과 귀농·귀촌 청년 대상 맞춤형 상품을 준비하는 한편, 은행 등 전국 시·군 단위 네트워크를 통해 접근성도 차별화 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농협금융은 미소금융재단 설립과 더불어 올 하반기에 마을기업 대상 사회연대금융모델 발굴, 지역신용보증재단 조기 특별출연, 장기 연체자 및 금융취약계층 대상 재기지원 등 지역금융·포용금융 확대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갈 예정이다.

강태영 기자
ktya0712@daum.net

농진청,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전략 학술토론회' 개최

탄소중립 실현 '산·학·연·관 머리 맞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7월 21일 농업공학부 대강당에서 '농업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전략 학술토론회'를 연다.

이번 학술토론회는 농업 분야의 에너지 이용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신재생에너지와 복합 열원 기술을 활용한 농업 에너지 자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전남대학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신성이엔지를 비롯한 산·학·연·관 전문가와 농업인 등 약 6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총 7개의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농업 에너지 전환 정책 방향 및 추진계획 △전력 및 열에너지 활용 농업 에너지 자급 방안 △공기열 히트펌프 및 태양열·광(PVT) 융합 시스템 실증사례 및 농업적 활용 △영농부산물을 이용한 고체연료화 기술 및 정책 △히트펌프+축열+에너지관리시스템(EMS) 통합운영과 피크대응 전략 △영농형 태양광 실증사례 및 활성화 전략 △농업 신재생에너지 활용 사례 국외 동향 등이다.

이어 종합 토론 시간에는 연구개발 협력 방안을 주제로 농업 에너지 전환 정책 방향과 신재생에너지 기술 확대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성제훈 원장은 "농업 에너지 전환은 탄소중립은 물론, 필요한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지산지소'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이 자리가 신재생에너지 활용 기술 개발 전략을 찾고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소통과 협력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대경 기자
press@nonguptimes.com

'2026 대한민국과일산업대전' 참가업체 모집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과수농협연합회가 국산 과일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 촉진을 위한 '2026 대한민국과일산업대전' 참가업체 모집에 나섰다.

참가 신청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 과수농가와 지역농협,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 유통·가공업체, 농기자재업체 등이 대상이다.

올해 대한민국과일산업대전은 오는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열린다. 국산 과일의 우수성과 산업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생산·유통·소비를 연결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과일산업 종합 박람회로 운영될 예정이다.

2011년부터 개최된 대한민국과일산업대전은 국산 과일 전시와 신품종 홍보, 소비자 체험행사, 대한민국 대표과일 선발대회 시상식 등을 통해 생산과 유통, 소비를 아우르는 대표 행사로 자리 잡았다. 올해는 대표과일 선발대회 수상작 전시를 비롯해 신품종 소개, 정책홍보관, 지자체홍보관, 홍보·판매관,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 특히 지자체 홍보관과 판매상담관을 확대 운영해 지역 대표 과일 브랜드 홍보와 국내외 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